

## ■ 2008년 미대통령 선거에서 라티노의 투표 성향<sup>1)</sup>

2008년 라티노 유권자들은 차기 미국 대통령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백악관으로의 길은 상당한 라티노 인구수를 확보한 핵심 격전지인 플로리다, 네바다, 콜로라도, 뉴멕시코와 같은 주를 통과할 것이다.

라티노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통념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의문시되는 가정도 명백한 ‘사실’이 되고 만다. 1) 힐러리 클린턴 상원 의원은 ‘라티노 문제’를 지닌 버락 오바마 의원을 누르고 라티노들의 표를 얻었다. 2) 존 매케인 의원은 의회에서 포괄적 이민개혁안(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을<sup>2)</sup> 주도하였기 때문에 라티노 유권자들과 연줄이 닿아 있다. 예를 들어, 최근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의 한 글은 “오바마는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오바마의 어려움은... 격전지로 거론되는 뉴멕시코와 네바다 같은 주, 서부에서 두드러지게 증명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2008년 6월 24일)

흔히 그렇듯이, 이런 ‘사실’은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통념을

1) 이 글은 2008년 7월 9일자 《아메리카즈 보이시 America's Voice》에 실린 정치 분석 기사이다. 원문은 ‘The Latino Vote in the 2008 Presidential Election’이며, 출처는 [www.americasvoiceonline.org](http://www.americasvoiceonline.org)이다.

2)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2006년 3월 27일 비교적 온건한 내용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bill)을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불법체류자의 미국체류를 돕는 것조차 형사처벌대상으로 삼는 반이민법조항을 배제했다.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을 주는 ‘게스트 노동자’ 방안을 법안에 포함시켰으며,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 일단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재입국하는 절차도 생략했다. 또한 농업이민자로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 150만 명에게 임시 노동 허가증을 발급하는 방안 또한 담고 있다.



라티노의 선거참여운동을 벌이고 있는 ‘투표하세요’(Ve y Vota)의 웹사이트 화면 ([www.veyvota.org](http://www.veyvota.org))

앞세운다. 사실 최근 여론 조사는 라티노 유권자 사이에서 오바마가 매케인을 가볍게 제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라티노 최고 지지율이 2004년 조지 부시대통령이 얻은 40%라고 한다면, 매케인은 현재 그 최고치를 밀돌고 있다.

### 라티노는 매케인보다 오바마를 훨씬 선호한다

오바마는 히스패닉 사이에서 존 매케인을 무난히 앞지르고 있고, 이것은 2004년 존 케리가 조지 부시에 앞선 것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오바마의 우세는 라티노 사

이에서 약 35포인트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히스패닉을 제외하면 판세는 사실상 엇비슷해진다.

- 《Huffington Post》, “Obama and Hispanics: Another Myth Exposed”, 2008년 6월 30일자

최근의 여론 조사를 보면 라티노 유권자는 매케인보다는 오바마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라티노는 59%대 29%로 오바마를 선호한다. “갤럽이 3월 초 선거 투표 선호도를 조사한 이래로 오바마가 2대 1정도 차이로 매케인을 앞서고 있다. 다양한 인구 배경을 지닌 히스패닉은 거의 오바마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쪽이다.”(Gallup, “Hispanic Voters Solidly Behind Obama”, 2008년 7월 2일.)

- NBC/WSJ 여론 조사에 의하면 라티노는 62%대 28%로 오바마를 선호한다.

- 모든 라티노 유권자 사이에서는 오바마가 60%대 23%로 매케인을 누르고, 라티노와 유사한 성향의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63%대 24%로 앞선다(《Latino Decisions》가 2008년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주와 지역별로 살펴보면,

- 캘리포니아, 66% 대 20%

- 뉴욕, 65% 대 20%

- 텍사스, 61% 대 22%

- 플로리다, 43% 대 42%

- 4개의 남서부 격전지 주들, 뉴멕시코, 애리조나, 콜로라도, 네바다, 57% 대 31%

- 캘리포니아, 라티노와 유사한 성향의 유권자에서는 69%대 20%로 앞선다.(Public Policy Institute of California)
- 라티노는 62%대 29%로 오바마를 선호한다.(Gallup, 5월 31일)
- 57%대 29%로 매케인보다 오바마를 선호한다.(Reuters/Zogby 여론조사, 5월 18일)

라티노 유권자를 상당히 보유한 격전지가 되는 주들 가운데, 매케인은 오직 플로리다에서만 히스패닉 사이에서 오바마와 진짜 경쟁해 볼 만하다. 플로리다주는 조지 W. 부시가 2004년에 대다수 히스패닉 표를 획득한 곳이다.

애리조나에서조차 2008년 예비선거 출구조사를 보면, 전 라티노의 68%가 민주당에 투표를 했고 오직 32%만 공화당에 투표했다.(NDNBlog, 2008년 6월 13일)

매케인이 애리조나주 출신 의원이라는 점과 2004년 상원의원 재선거에서는 74%의 라티노 표를 얻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열기의 차이는 놀랍다.(CNN 출구 여론 조사 데이터, 2004년 11월) 확실히 이걸 매케인이 선거기간 동안 국가 전체에서, 그리고 자신의 출신 주에서 라티노 표를 많이 차지하리라는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라티노 민주당 예비선거 유권자들은 오바마를 ‘거부하지’ 않았다.

라티노 유권자들을 향한 오바마의 입장에 관련된 신화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나온 잘못된 결론에 근거하고 있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역학 분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를 지지하는 라티노

“매케인은 라티노 유권자와 문제가 있어도 오바마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공정하지 않다. 이것은 결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통념의 한 예일 뿐으로, 일차 출구조사와 라티노에 대한 잘못된 정형화에 근거하여 추측한 결과일 뿐이다.”(First Read, NBC News, 2008년 6월 17일.)

슈퍼 화요일에 힐러리 클린턴은 63%대 35%로 라티노 민주당 예비 유권자의 표를 얻었고, 이는 오바마가 라티노 유권자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았다. 그러나 힐러리의 승리는 라티노 사이에서 그녀의 대중성을 반영한 것이지, 오바마가 인기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티노 정치에서 탁월한 두 전문가인 매트 A. 바레토와 리카르도 라미레스는 최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논설에서 이런 통념을 반박하고 있다.

“2008년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라티노의 지지를 반 오바마 혹은 반흑인 투표 유형과 동일시하는 것은 정확치 않다. 네바다와 캘리포니아에서 라티노에 대한 다양한 여론조사와 본지의 자체

여론조사를 보면 힐러리의 우세는 주로 8년간의 영부인 생활과 7년간의 의원 생활에 기인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반면, 작년 4월에 실시한 라티노 선거인 명부 등재자 국민여론조사를 보면, 8%만이 힐러리를 지지하는 반면 35%는 오바마에 대한 아무런 의견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가까이는 1월 중순에 실시한 현장여론조사에서도 캘리포니아의 라티노 27%는 오바마에 아무런 의견이 없다고 대답했다. 간단히 말해, 정치 참관자들 사이에서 오바마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알려졌고, 이번 선거운동 이전에는 라티노 사이에서 국가적 인사로 부상하지 못했던 것이다.”(《로스앤젤레스 타임스》, 2008년 2월 7일)

단순히 말해, 라티노 민주당 예비선거 유권자는 오바마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힐러리를 선택한 것이었다. 라티노 지지자들은 57%나 힐러리에 투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대권 경쟁에서 물러나자 주저하지 않고 오바마 쪽으로 움직였다. “라티노 유권자는 예비선거 기간 동안 반오바마가 아니었다. 본 선거로 가게 되면서 오바마는 라티노 유권자들 사이에서 크게 우위를 다지고 있다.”(《Latino Decision/Pacific Market Research》, 2008년 6월 16일)

### 반이민자 정책이 라티노를 공화당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대부분의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라티노들은 공화당이 이민법, 건강보험, 전쟁, 경제와 같은 주요 현안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게다가 공화당이 채택한 가혹한 반이민법 캠페인 전술과 정책이 라티노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유지하는데 확실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조지 W. 부시는 2004년에 대략 40%의 지지를 라티노에게서

이끌어 냈다. 이 숫자는 공화당이 이민법 문제에서 대폭 입장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라티노 지지자들에게 얻을 수 있는 최고 수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2004년 이래 이민법 개정 입법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와 가혹한 반이민자 정책에 대한 지지는 라티노들을 민주당 쪽으로 밀어내고 있다.

- 지지율 차이가 커진다. 등록된 히스패닉 유권자 중 57%는 “민주당원 혹은 민주당 쪽에 기운다고 말한다. 반면 23%는 공화당 편이다. 라티노들사이에서 지지도가 34%의 차이를 보인다. 2006년 7월에는 21% 차이였다. 1999년에는 33%였다.”(Pew Hispanic Center, “Hispanics and the 2008 Election: A Swing Vote?”, 2007년 12월 6일)
- 라티노 유권자의 거의 절반이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라티노에 더욱 호의적이라고 말한다. 라티노의 44%는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그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다고 대답함으로써 공화당보다 8% 격차를 보인다.(Pew Hispanic Center, “Hispanics and the 2008 Election: A Swing Vote?”, 2007년 12월 6일)
- 라티노 유권자의 거의 절반이 민주당이 불법이민문제를 더 잘 다룬다고 믿는다. 라티노 유권자들의 41%는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불법이민을 다루는 데 더 잘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공화당보다 14% 앞선다. 약 26%는 양당 모두 잘못하고 있으며, 12%는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Pew Hispanic Center, “Hispanics and the 2008 Election: A Swing Vote?”, 2007년 12월 6일)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를 지지하는 라티노

**매케인은 그의 이민법 개정 발의 전력과 공화당 정책 사이에서 압력을 받는다**

비록 존 매케인이 한때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발의한 장본인이지만, 이민법에 관한 그의 입장은 공화당의 압력으로 인해 변화되었다. 공화당을 양분화시킨 2006년, 2007년 이민법 개정에 대해 의회에서 치열하게 공개 논의한 후에, 대부분의 공화당원들은 법률의 강력한 시행과 불법이민자 송환 정책을 수용했다. 2007년 이민법 발의에 실패한 후, 매케인은 우편향적 변화를 보이며,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국경 안보 우선”을 선언하며 공화당 후보지명을 위한 싸움에서 뒤처지던 전망을 되살리고자 했다.

공화당의 반이민자적 토대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라티노 유권자들에게 호의적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 《폴리티코》지는 최근 한 리포트에서 존 매케인이 “불법이민자들을 합법화시키고 국경을 강화할 그의 이민법 발의를 작년에 철회했을 때 라티노들은 실망했다”라고 말한다. 성난 공화당 보수파들의 야유와



비난의 소리가 캠페인 집회에서 커져갈 때, 매케인은 경로를 바꿔 국경을 ‘먼저’ 안전하게 지키는 일에 서약한 것이다. 매케인은 만약 그 실패한 발의안이 다시 상정된다면, 자신은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Politico》, “McCain's Immigration Zigzag”, 6월 20일, 2008년)

이런 입장은 오바마를 포함해 대부분의 민주당 후보들의 견해와 배치된다. 오바마는 일반적으로 상식적 수준의 이민법 개정에 동의하는데, 국경 안보, 불법 고용과 노동 착취의 폐지, 법률적 이민 제도의 개정, 그리고 영어 습득, 세금 납부, 예비 수표 발행, 또한 기본적인 시민권 기준에 도달하게 허용함으로써 현재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들을 합법화시키도록 만드는 요구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선거 운동에서, 매케인은 국경 안보를 우선시하며, ‘진짜’ 비정규직 노동자 프로그램이 둘째이고, 이민 노동자들에 대한 공평한 처우가 그 다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민법 개정의 한복판에서 한걸음 후퇴하기 시작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은, 매케인이 방아쇠 메커니즘을 지닌 법안(즉 포괄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접근법)을 선호했는지, 아니면 제재강화우선 방식으로 발효되는 일련의 세 개의 독립적 조치(포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접근법)를 선호했는지는 모를 일이다.<sup>3)</sup>

그 차이는 작지 않다. 분리된 법안들로 이루어진 제재강화우선 조치는 이민자, 노동자, 지역공동체, 고용자에게 나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제재강화(enforcement-only) 정책들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를 풀기보다는 불법 이민자들을 더욱 지하로 내몰

3) 제재강화우선(Enforcement-first)정책은 이민법을 개정하면서 강화되는 부분은 다른 방안을 마련하여 혜택을 주거나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법안들이고, 제재강화(Enforcement-only) 정책은 이민법을 개정하되 혜택은 포함되지 않는 방안으로 주로 반 이민 성향이 짙은 하원의 법안들이다.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20년간 제재강화우선 방식을 시도했고, 역기능적 현상유지라는 혼란상황을 초래했다. 한편, 포괄적 접근은 불법 이민자들을 합법적이고 제어되고 규율적인 이민자들로 바꾸겠다고 약속한다. 바로 일반 국민이 요구하는 상황이다.

선거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매케인이 초기에 용기를 지니고 수용했던 포괄적 이민 개혁으로 돌아갈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가 그렇게 한다면, 전문가 추산 공화당 유권자의 대략 30-40%에 해당하는 공화당의 반이민자파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 그가 포괄적 개혁 쪽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다면, 그들은 반발하면서 집에 머물러만 있을 것인가? 하여간 정치적 위험을 무릅쓸 가치가 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은 가장 좋은 정책과 정치는 매케인이 명백하게 포괄적 해결책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보다 효과적으로 경쟁하고 당을 혼란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현재 부족한 그리고 필요한 지지를 주요 주의 라티노 유권자들에게서 얻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여론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주들에서 라티노 유권자들의 표를 얻지 못한다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많은 라티노 유권자들, 특히 스페인어를 주로 사용하는 라티노 유권자들에게 결정적인 사안인 이민법 개정 문제를 통해, 이민법 논쟁의 결과가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결정적이 됐음을 증명할 수도 있다.□

[서라연 옮김]